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사회구축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95년 회장을 물러난 후 3년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사회 촉진을 위하여 애쓰신 전임 남궁 석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IMF 한파 속에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금융에서 시작된 IMF의 냉엄한 경제 체제는 저성장 · 고실업과 구조조정, 그리고 수출 극대화라는 세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은 1996년 기준 GDP의 8%를 점유하면서 수출 3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구조조정에 기여하고,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 업계와 정부의 이러한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 민 · 관의 교량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번째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협회내에 각종 업종별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추가하여 업계의 상호 이해 조정과 협조를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정책의견 제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통해 IMF체제 극복할 터

예로서 회원사의 강점 분석과 협조방안 강구, 멀티미디어기술대상 운영, 전자상거래시범사업 추진 등 멀티미디어 및 EC관련 산업 육성과 중소 벤처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관련 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의 촉진과 국제표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해외기술, 시장동향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배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국가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지정통계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해온 정보통신산업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통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여기에 분석과 정보제공 기능을 보강하여 정보통신산업발전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보급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의 2000년 연도표기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 POOL 구성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국민의 정부에서 정보통신산업에 거는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여러분은 물론 산·학·연·관의 관계자 여러분과 협조하여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정보사회 구축을 통한 IMF체제 극복」이라는 목표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 장 정 장 호